

흙살림
HEUKSALIM



흙살림균배양체로 건강하게 풍년농사 지어요

균배양체·유박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받습니다

“좋은 퇴비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

친환경농법으로 깻잎을 생산하고 있는 이정갑 대구시 친환경연구회 회장의 말이다. 오랫동안 흙살림균배양체로 토양을 관리하면서 땅심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충주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라영환 씨도 흙살림 균배양체를 쓰면 ‘땅이 보슬보슬 좋아지는데 보인다’고 한다.

꼭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만 흙살림균배양체를 쓰는 것은 아니다. 충북 괴산에서 관행농법으로 마늘과 양파를 짓는 농부들도 가을이면 흙살림 균배양체를 꼭 가져다 밭에 뿌린다. 병해충이 적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이다.

11월부터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흙살림 균배양체와 흙나라 유박도 각 읍·동사무소와 이장, 농협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흙살림 균배양체는 목록공시된 특등급 퇴비로 필리핀 수출 등을 통해 그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흙나라 유박 또한 혼합유박으로 많은 농가에서 찾고 있는 인기 제품이다. 내년 농사는 흙살림균배양체와 흙나라유박으로 건강하게 준비해보자. 농민회원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문의 080-333-8179, 043-216-2958



충북 괴산의 흙살림 공장에 새롭게 투입된 자동화 기계로 흙살림 균배양체를 비롯한 친환경 농자재 생산이 보다 빠르고 안정화되었다. 흙살림은 농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흙살림은 10월 29일 친환경농자재 필리핀 5차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흙살림 황수화제 필리핀 첫 수출

흙살림은 10월 29일 친환경 농자재로 쓰이는 황수화제 1,000ℓ를 필리핀에 첫 수출했다.

2016년부터 필리핀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황수화제의 효능을 농업인들에게 알리고 현지에서 포장 시험(Field Test) 등을 거쳐 효과가 입증되면서 첫 수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제품은 필리핀의 바나나, 벼, 토마토, 감자, 오이, 그린피 등의 농작물에 사용될 예정이며, 필리핀의 농업전문회사인 'Norte Agila'가 'Fungicure'란 제품명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흙살림은 친환경 농자재의 해외 수출을 위하여 앞장서 왔으며 2016년 국내 최초로 유기질 비료를 수출하였다. 친환경유기질 비료인 '흙살림균배양체'와 미생물 비료인 '흙살림골드'를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필리핀에 수출해온 것이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현재 베트남 수출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흙살림은 농자재 해외 수출에 더욱 노력하고 수출 국가도 다변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9년 11월 신청
2. 신청장소 | 읍, 면, 동사무소, 이장, 농협 등
3. 공급시기 | 2020년 1월부터 공급
4. 제출서류 | 읍, 면, 동 사무소에 비치
5. 지원품목

- ①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흙나라 유박)-(주)흙살림으로 신청
- ② 부산물비료 | 퇴비-특등급(흙살림 균배양체)-(주)흙살림으로 신청

꼭 '특등급'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또는 흙살림 농자재팀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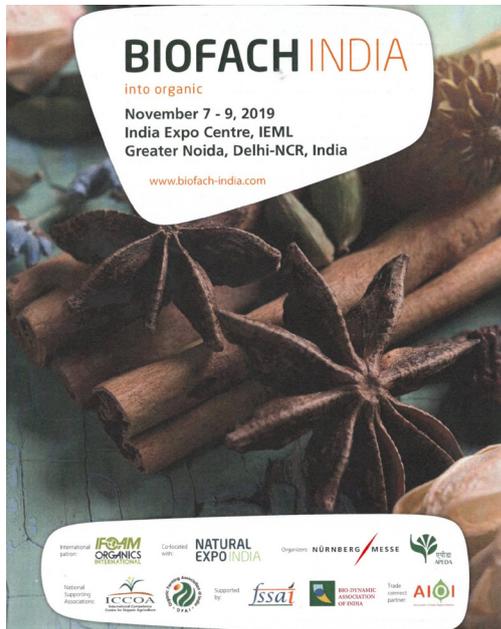
☎ 문의전화 | 080-333-8179 / 043-216-2958



유기농식품 박람회(BIOFACH) 인도서 개최 흥살림, 아시아유기농청년포럼 대표로 참관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식품 박람회인 비오파(BIOFACH)가 오는 11월 7~9일 인도 델리수도권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 Delhi-NCR)에서 열린다. 비오파는 매년 2월 독일 뉘른베르크 박람회를 시작으로 대륙별로 진행된다. 올해 5월엔 중국 상하이, 7월엔 태국, 9월엔 미국, 10월엔 남미에서 박람회가 열렸다. 올해는 아프리카에서도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인도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11번째로 누렘버그메스(NurembergMesse)가 주관하고 인도 농산물수출공사(APEDA)가 공동 개최하며,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Organics International)에서 공식후원한다. 지난해에는 약 20개국에서 185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흥살림의 이수현 과장이 아시아유기농청년포럼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 참관한다. 비오파는 유기농 라벨이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전시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유기농의 품질과 신념을 전달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열리는 박람회다. 매년 유기농 제품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공통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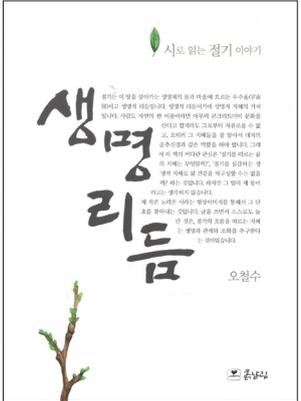
폼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유기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신 유기농 기술 등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포럼 등도 함께 진행된다.

발효부속촉진용 미생물자재

흥살림 골드

발효 및 길항미생물이 다량 함유된 부속 촉진제. 퇴비발효를 촉진하고, 유용미생물을 공급합니다.

흥살림 도서에서 살림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생명리듬-시로 읽는 절기 이야기
-저자 : 오철수
-쪽수 : 242
-정가 : 15,000원
시인은 절기의 흐름 속에서 어떤 생명적 지혜를 노래하고 있을까?
그를 찾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길을 따라 가본다



365일 꿀벌 기르기
-저자 : 신영미 배지숙
-쪽수 : 222
-정가 : 18,000원
이 책의 상황별 123개 질문과 해답은 양봉을 시작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며, 49개의 다양한 읽을거리는 초보 양봉가가 궁금해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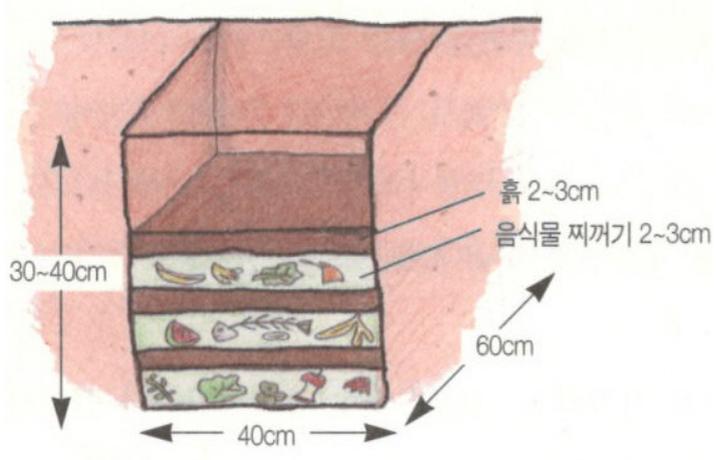
흥 살리기
-저자 : 이태근
-쪽수 : 118
-정가 : 8,000원
이태근 흥살림 회장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흥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한한 글들을 모았다.

※ 전국 각 서점 및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 및 문의사항 흥살림 출판 사무국 043-833-5004
입금처 농협 323-01-059315 예금주 사단법인 흥살림연구소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23>

-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 만들기**
일반적으로 가정에 2~3평의 텃밭이나 정원수가 있다면 아주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①먼저 부엌에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유기물을 분리한다.
 - ②텃밭에서 넓이 40cm×60cm, 깊이 30~40cm의 구덩이를 판다.
 - ③한쪽 가장자리에서부터 ①번의 유기물을 넣는다. 겨울철에는 덮지 않아도 괜찮지만,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냄새와 파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에다 흙을 2~3cm 덮는다.
 - ④구덩이가 꽉 차면 흙을 5~10cm 정도 덮는다. 이때 미생물이 많은 잘 부숙된 퇴비와 흙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처음이라 완숙퇴비가 없으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퇴비 발효제를 구입해 사용한다. 독일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생유기물은 땅에 파묻고 그 위에 완숙퇴비를 덮어 유기물을 환원시켜 악취의 발생을 막는다.
 - ⑤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제법 쓸 만한 퇴비로 변하며, 30cm 정도 쌓은 찌꺼기더미가 흑갈색을 띠는 약간의 부식토로 바

배수 나쁜 곳은 구덩이 얇게



뀐다.
⑥이때 주의할 점은 배수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구덩이를 너무 깊이 파지 말고 약 20cm 정도 파야 한다. 그래야 부속에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은 구덩이를 파서 유기물을 넣고 흙을 덮어 '냄새가 나는 곳에 뚜껑을 덮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흙속의 토양 미생물들이 음식물찌꺼기를 분해한다. 그리고 흙은 이러한 미생물들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활성탄처럼 악취를 흡수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방법은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 땅심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땅속에서 토양유기물을 높이는 데 기본이 되는 분해가 더딘 리그닌 성분이 없기 때문이다.

글 석종욱 (사)흥살림연구소 대표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처** (사)흥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석종욱 | **편집위원장** 경우창 | **편집위원** 박석준 오철수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28126)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28138)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28000)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 | **흥살림연수원** (28002)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영천6길 11-1·전화 043)833-5004

까락 붉은 ‘비단찰’ 금수강산 실감

윤성희 소장의 종자 이야기<13>

우리의 벼를 찾아서(4) : 비단찰, 노인벼, 벼들벼

토종벼 품종에 대한 기록은 금양잡록(1492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이어받아 1600년대 산림경제를 거쳐 임원경제지(행포지 1800년대)로 집대성된다. 일제 강점기 초에 조선총독부에서 대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6·25 전쟁 후에는 국영 연구기관(농촌진흥청)에서 이를 이어받아 유지해오고 있다. 1980년대 들어 농촌진흥청은 종자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종자은행을 설립하며 체계적인 종자자원의 수집과 보존 작업을 해온 덕에 그나마 토종벼 자원이 보존되고 있다.

1910년경까지 재배된 토종벼는 전국적으로는 다다조(多多租), 맥조(麥租), 노인조(老人租), 조동지(趙同知, 無芒) 등이 있고, 그 밖의 남부 지방에서는 미조(米租 無芒), 구황조(救荒租), 모조(牟租), 남조(南租), 왜조(倭租, 無芒), 황조(荒租), 두조(豆租), 정금조(正金租), 만조(晩租), 정조(正租) 등이 재배되었으며, 북부지방에서는 대구조(大邱租), 용천조(龍川租), 선천조(宣川租), 돈조(豚租), 냉조(冷租), 연안조(延安租) 등이었다고 한다 [인용 : 수도작, 향문사].

대학교재로 주로 쓰였던 이 책 속에서, 벼 이름 뒤에 도(稻)가 아니라 조(租)자가 붙는 것은, 고상안의 농가월령속에서도 조(租)가 붙으므로 한자로 稻나 租나 모두 메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찰벼품종에는 나(糯)로 기록하는 사람과 점(粘)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는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지 완전히 다른 품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리하여 끝에 붙는 租를 모두 稻(벼)로 읽어도 무방하고, 粘을 모두 糯(찰)로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더구나, 농민들은 벼 품종의 이름을 한자로 부르지도 않은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한자의 사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농민들이 말하는 품종이름을 어렵지 않게 한역하여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어쨌든, 한자



비단찰벼(출처 : 박영재, 2019).

를 몰랐던 농민들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우리말 이름으로 불렀을 것이다. 민요나 고사덕담에 나오는 벼 품종의 대부분이 우리말인 것을 보면 이런 주장이 신빙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

메벼로 두도(豆稻), 수원도(水原稻), 백다다도(白多多稻), 조동지(趙同知), 대궐도(大闕稻), 불도(佛稻), 어반도(御飯稻), 이고도(履藁稻), 다자도(多子稻), 무발도(無髮稻), 유월도(六月稻), 갠나도(梗糯稻) 등 41개 품종이, 찰벼로는 대추찰, 저나(猪糲), 황서나(黃鼠糲), 변덕나(變德糲), 자치나(雌雉糲), 다복나(多福糲) 등 21품종이며, 밭벼로는 산도(山稻), 옥산도(玉山稻) 등 2품종이었다. [인용 : 충북농업100년사, 충북농업기술원]

충북농업100년사 자료를 보면 100여 년 전에 주로 심었던 벼 토종품종 들도 충북 외 지역과 큰 차이 없이 다양한 종류의 토종벼가 재배됐음을 알 수 있다. 깊은 제조용 품종으로 보이는 “이고도(履藁稻)”가 별도로 있었음이 특색으로 볼 수 있고, 이 자료에서 다소 아쉬운 것은 농민들이 실제로 불렀던 한글 이름이 거의 없는 점이다.

1. 비단찰(錦糲), 비단벼(錦稻)
비단찰벼는 조선도품종일람(1913)에는 전국 118개 군에서 수집되었고, 메벼인 비단벼는 전국 9개 군에서 수집되

었다. 비단찰벼는 전국 어디서나 재배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비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어딘가 비단처럼 아름다운 구석이 있어야만 하겠다. 아마도 이삭이 펴 때의 모습이 꼭 비단물결을 이루지 않았나 싶다. 이 벼가 심어졌던 곳에서는 논마저도 금수강산이란 말이 실감났을 터이다.

비단찰벼(錦粘)는 까락이 붉은색이고 [이옥, 백운필]
● 울긋불긋 비단찰 [고사덕담, 태안군지]
● 이름종다 비단찰 [보제 고사덕담, 청주시민요]

비단찰은 기록이나 민요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데, 까락의 색깔이 울긋불긋하여 겁나게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인벼(老人稻), 노인찰(老人糲)
고문헌과 민요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노인벼이다. 1913년 기록에도 메벼인 노인벼가 108개 군에서, 찰벼인 노인찰이 45개 군에서 수집되었다고 하니 실로 전국에 걸쳐서 재배된 것으로 봐야 한다. 심지어 울릉도에서도 수집되었다.

● 노인조도 老人早稻[노인 자체. 까락과 겹질이 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이 품종은 올벼와 늦벼가

있다. 올벼는 7월에 익으며 쌀이 매우 기름지다. 하지만 1두를 찢으면 겨우 쌀3승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임원경제지, 서유구]

- 노인도 老人稻[노인벼. 까락이 길고 줄기, 잎, 벼껍질, 까락색이 모두 흰색이다. 씨를 파종하는 시기는 조개벼와 같다.][임원경제지, 서유구]
- 노인올벼(老人早稻)는 까락이 매우 길고 희며 대궐벼(大闕稻)라고도 한다. [백운필, 이옥]
- 허연백발 노인베요 [종자 타령, 양주소놀이굿]
- 나이 많아 노인벼라 [풍등가, 서울민요]
- 인간칠십에 노인베심었나 [단허리, 양평군민요]
- 환갑진갑 노인벼 [고사덕담, 태안군지]

※ 참고 : 대궐도 大闕稻[대궐벼. 까락이 짧고 겹질은 희다.][임원경제지, 서유구]

고서와 민요를 보면 노인벼는 메벼가 대체인 것을 알 수 있고, 흰색의 까락이 노인의 머리카락을 연상케 하여 이름이 붙었으니, 이삭 펴 무렵 그 논이 광경이 과연 어떠했을지 눈감고도 상상해볼 수 있다. 이옥의 백운필에서 노인벼를 ‘대궐도’라고도 했다는 대목을 보면 미절도 무난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유구는 대궐도를 까락이 긴 노인벼와 달리 까락이 짧고 흰색벼라고 설명하여 노인벼와 차이를 두었다. 결국 대궐도가 흰색 계열의 벼인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품종은 더 다양했을 성 싶다. 흰



까락이 하얀 토종벼 : 백석(白石)은 서울과 충북 영춘군에서 재배되던 벼이다.

색을 띠는 벼들을 노인벼라는 이름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백도, 백다다기, 흰벼, 은

도 등으로도 불렀을 것이다.

3. 벼들벼 (柳稻)
벼들벼는 키도 크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삭이 활처럼 휘어서 늘어진다. 공주시 유평리에는 지금도 벼들미 마을이 있고 토종 벼들벼를 재배해오고 있다. 100여 년 전 조선도품종일람에는 전국 24개 군에서 벼들벼가 수집되었고, 당시 공주시에서 수집된 벼들벼의 특징을 보면 숙기가 중생종이고, 까락이 있고, 까락색이 황색이고, 벼는 담갈황색이고, 이삭의 촘촘한 정도가 중간이며, 벼씨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임원경제지의 “벼들오려”에서 ‘오려’라는 말은 조생종인 올벼를 말하는 조선 중후기 고어로 볼 수 있다.



벼들벼(柳稻). 이삭이 벼들가지처럼 멋지게 늘어진다.

● 유도 柳稻[벼들오려. 까락이 있고 연한 누런색이며 꼭지가 연하다. 파종시기는 닭우리벼와 같다. 조금 늦게 심으면 참새 쫓는 고생이 없다.][임원경제지, 서유구]

2019년에 의미 있는 일로서, 공주시 유평리의 벼들미 마을은 국제슬로푸드협회 산하 생명다양성위원회로부터 벼들벼를 맛의 방주 목록에 당당히 등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벼들벼는 쓰러지기 쉬워서 재배가 상당히 어려워 대대로 지어왔던 농민들도 거의 다 포기하여 지역에서조차 소멸위기에 처해있었던 토종벼인데, 이 지역의 젊은 이장님이 나서서 난관을 무릅쓰고 부활을 시키고 있다. 쌀 맛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글 윤성희 흙살림토종연구소 소장

“친환경농부로 잘 살게요”

휴살림 청년귀농 장기교육과정 수료식

휴살림은 지난 10월 8일 휴살림 농장(충북 괴산)에서 청년 귀농장기교육 졸업식을 가졌다. 이번 졸업생들은 올 4월부터 6개월간 총 710시간의 이론·실습·견학 등의 귀농교육을 수료했다. 기초적인 농사이론과 휴살리기 방법, 마을과의 갈등 해결, 목공과 용접 등 귀농에 필요한 농사기술은 물론 시골생활에 필요한 삶의 지혜 등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다. 또한 선진농업현장 견학을 통해 농사에 대한 철학과 유통, 가공 등 농업 6차 산업에 대한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장기교육 졸업생들은 “휴살림 농장에서 트랙터와 관리기 등 직접 농기계를 다루고, 방울토마토·고추·토종벼·감자·옥수수 등 다양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을 남

겼다. 또한 휴살림을 통해 유기농업에 대해 접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태근 휴살림 회장은 “농사란 토기와 거북이 이야기 속의 거북이처럼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엇인가 하나라도 농사에 대해 알고, 올 한해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축사의 말을 전했다. 또 교육생들에게 표고버섯 재배를 가르친 지역 농부 이주영 씨는 “농업, 특히 유기농이 힘들고 외면 받지만, 땅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덕담을 건넸다.

한편 이번 휴살림 청년귀농장기교육 졸업생은 모두 4명으로, 이 중 3명은 휴살림 농장이 위치한 충북 괴산 지역에 귀농을 할 예정이다.



10월 8일 휴살림 농장에서는 지난 4월부터 총 710시간 동안 진행된 청년귀농 장기교육과정 수료식이 있었다. 이번 과정을 수료한 청년농부 중 3명은 충북 괴산으로 귀농해 친환경농사 등을 지을 계획이다.

스마트팜이 아니라 스마트농업이다

청년귀농 장기교육 일지

요즘 정부 농업정책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스마트팜’이다. 혁신밸리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이 있다 보니 청년농부들도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스마트팜이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작물재배 과정을 기계화·자동화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다. 휴살림 청년농부 장기연수생들이 스마트팜을 제대로 알고,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스마트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스마트팜 농장을 찾았다.

■ 데이터의 중요성
경북 상주의 ‘우공의 딸기정원’은 스마트팜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고설베드에

양액으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양액을 주고 하우스에 온·습도를 조정하는 과정이 자동화 시설로 되어있다. 하지만 딸기를 키우고 있는 광연미 팀장은 “기계를 믿지 마라”는 당부를 한다. 양액의 Ph와 EC 등의 세팅값을 정해놓고 자동으로 양액을 베드에 공급할 때 꼭 양액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화된 기계라고 하지만 이 세팅값에 오차가 발생하면서 잘못 공급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수치로 양액이 공급되면 1년 딸기 농사를 망칠 수 있기에 기계만을 믿고 맡겨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자동

작물 재배 관련 데이터 쌓아 환경 제어하는게 중요

화된 설비를 말하는 것이다. 농사는 스마트팜이 아니라 스마트농업이 중요하다. 작물의 환경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농업이다.” 광연미 팀장은 스마트팜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작물에 대한 공부와 우선이고, 따라서 온도와 습도에 작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투자 대비 소득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광 팀장의 설명이다. 만약 유리온실 등 투자 비용이 2배로 든다면 생산 또한 2배로 늘릴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 투자, 생산, 감가상각 등을 다 따져서 스마트농업을 시작해야 한다.

■ 작물부터 알아라
전북 완주의 영광포도원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생산을 지향하는 유기농 포도농장이다. 이 농장의 관수자동 시설 등은 강혜원 대표가 직접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또한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영광포도원은 두둑 없이 풀



영광포도원의 강혜원 대표가 포도나무의 생리를 설명하고 있다.

을 키우는 방식으로 3,700평의 과수원을 혼자서 재배하고 있는 곳이다. 포도나무 한 그루당 12~50미터의 키를 자랑하고, 30종이 넘는 포도가 어울려 자라고 있다. 강혜원 대표는 “포도나무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농사”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반 포도농장에서 하는 알숙기, 적심, 봉지 씌우기 등을 하지 않고도 고품질의 유기농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동력 투입이 평균대비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퇴비나 비료 등 외부의 투입없이 풀을 키워 자른 것으로 땅의 힘을 기른다. ‘풀이 보약’이라는 것이다. 좋은 땅을 만들어 병해충이 없

도록 생산하고, 나무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농사 기술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대상 작물에 대한 이해와 기술 부족이기에,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경쟁우위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 대표의 주장이다.

청년농부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농사를 짓는 것은 경영을 따져야 하고, 스마트농업은 이런 경영에 있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배웠다. 농사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작물에 대한 이해’임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광연미 팀장이 우공의 딸기정원의 스마트팜 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씨앗·삼목 따라 페퍼민트성장이 다르네~

아가씨의 꿈이 자라는 허브 농장<13>

씨앗으로 키운 개체가 2배 가까이 자라

서천의 너른 들판에 완연한 노란 물이 드니, 최근 아침저녁으로 수확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올 가을엔 흐린 날이 많았기 때문인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일주일 정도 수확이 늦어졌다고 한다. 한낮에는 뉘뉘게 나온 벼 이삭을 익히려는 듯 햇살이 따갑다가도, 오후만 되면 기온이 확 내려가 큰 일교차에 예민한 허브채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가 되었다. 최대한 따뜻한 기온을 유지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하우스를 열고 닫는 일을 신중히 하고 있다.

지난 달, 한차례 곰팡이와 거세미가 휩쓸고 지나간 하우스 안에 살짝 진딧물이 발생했다. 다행히 진딧물은 흙살림 친환경 자재를 활용했

더니 잘 잡히고 있는 중이다. 작물에 큰 피해를 입진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잎과 줄기에 솜털이 보송한 애플민트에 가끔 죽은 진딧물이 끼어서 계속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수확 후 재확인을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워졌다.

매일 하우스 안에서 다양한 허브들이 함께 자라는 모습을 지척에서 보고 있으면 새롭고 신기한 자연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물을 먹는 여러 종류의 채식 곤충들은 각자 선호하는 식물의 우선순위가 있다. 청벌레 같은 경우는 바질, 루꼴라, 애플민트, 페퍼민트 등 거의 모든 잎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루꼴라를 제일 좋아한다. 진딧물은 민트에 가장 먼저 달라붙는다. 거



일교차가 커지면서 허브채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세미 유충의 경우에는 처음에 민트를 먼저 심었을 때 그렇게 모종을 잘라 놓더니, 그 다음 바질 모종을 정식한 이후로는 민트는 건들지도 않고 바질만 골라가며 줄기를 잘라 놓곤 했다. 또 다른 신기

했던 것은 씨앗으로 심어 키운 페퍼민트와 삼목해서 키운 같은 크기의 페퍼민트의 잎을 수확했을 때, 다시 잎이 자라나는 성장 속도가 씨앗으로 키운 개체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뿌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2배의 속도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서천은 온도가 아직 영하로 떨어지려면 멀었지만 농장 주변에 살고 있는 야생 동식물들은 벌써부터 겨울 준비로 바빠 보인다. 빈 논마다 모여드는 꿩과 감나무 위의 작은 새들, 호두나무와 참나무 사이를 오가는 청설모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다. 최대한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해 여름보다 더 화려한 색으로 만발한 메리골드와 국화들도 집 앞 화단에 한창이다. 허브농장과 블루베리 과원의 월동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나로서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지난번 태풍 링링으로 인해 구멍이 난 하우스 천창 비닐도

마져 보수를 끝해야 하고 3중 하우스 전체적으로 바람이 들어올 만한 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한다. 여름 내 걸어 놓았던 하우스 입구 단열 커튼도 꺼내 다시 붙여 놓고, 서리가 오기 전에 스테비아와 메리골드 씨앗도 채종을 마쳐야 한다. 틈틈이 수확 가능한 스테비아는 잎을 말리고, 뿌리는 캐서 내년 봄을 위해 하우스 안으로 옮겨놓을 예정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블루베리에 소나무 톱밥도 덮어줘야 하고 농장 관수 시설이 얼지 않게 보온도 준비해야만 한다. 허브들이 자라는 속도가 따뜻했던 계절보다 느려져서 틈틈이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작년 겨울을 지내며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조금은 알게 되어 준비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 진 것 같다. 점점 더 농장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생각이 들 때 마다 새삼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앞으로도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글 이수진 농부

아이들도 좋아하는 미니밤호박 손 수정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딸기농장<13>

자연과 교감하는 놀이로도 안성맞춤

농사집의 10월은 미니밤호박과 딸기가 자라는 시간이다.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가는 시기이지만 병충해에 취약해 농부에게는 가장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미니밤호박은 너무 잘 자라는 아이들이라 큰 병은 없다. 흰가루병은 박과 작물에 주로 생기는데, 밀가루처럼 잎을 하얗게 덮어 잎을 고사시킨다. 또다른 복병인 진딧물은 딸기에 천적을 넣은 효과를 보기에 지금은 좀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10월 20일 경의 미니밤호박은 자라는 길이로는 벌써 다 자란 상태이다. 열매가 되는 암꽃은 5~6개쯤 피지만 잘하면 세 개이고 보통 두 개의 열매가 달린다. 호박은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퇴비로만 키우기에 무리하게 하지 않고 나오는대로 적당히 받을 것이

다. 워낙에 적은 갯수이기 때문에 가을 밤호박은 조금 아쉽다. 그렇기에 수정율을 높이려 열심히 손으로도 수정을 해준다. 벌을 넣어 수정을 하지만 벌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수정률이 떨어진다. 보통은 1~3번과 까지는 손이 닿아 손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공중에 있는 관계로 벌에게 맡겨둔다. 농사집만의 손 수정은 재미가 있다. 아이들이 좋아해 시간이 되면 수정을 따서 암꽃에 꽃가루를 묻히는 놀이를 하면 자연과 교감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정서에도 참 좋은 자연놀이인 것 같다.

이제는 끝을 더 자라지 못하게 적심을 해주고, 열매에 집중하게 해주어야 한다. 가을은 짧고,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11월까지 열매가 익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다. 박과 작물은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 살아갈 수가 없



미니밤호박을 손으로 수정하면 수정률도 올라간다.

다. 그래도 하우스가 2중이어서 11월 후반까지는 큰 추위만 오지 않는다면 생육이 가능한 것 같다. 그만큼 성장은 더디고 열매에 온 힘을 쏟게 해준다. 더디게 익어간 가을 미니밤호박은 정말 파근파근하고 달콤하다. 누군가는 해가 짧아 안된다고 했다. 맛도 들지 않아 하나마나라고 했다. 그렇지만 가을 미니밤호박 맛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딸기는 이제 꽃대가 나오고

꽃을 피우려 하는 시기이다. 9월에 정식한 딸기모는 가장 약하기 때문에 10월까지의 병해에 취약하다. 올해 남도는 비도 많이 오고 무더울 땐 무더위 딸기 모들이 병이 많다. 병이 없이 키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잘 크다가 시들어 죽으면 참 뭐라 말할 수 없다. 저희와 함께 품앗이 하며 친환경 딸기를 하시는 농부는 딸기 포장의 50% 가까이가 크지 못하고 죽어 갔다. 이를 어찌 말로 할 수가 있을까.

저희 딸기 모는 조금 건조하게 키워서인지 물 부족 현상이 심한 듯하다. 고온의 날씨에 습이 많으면 병이 많기에 조금 건조한 듯 키우려 했는데 물이 부족해서인지 생육이 떨어진 곳이 있어 당분간 물을 조금 넉넉히 주면 생육이 나아질 것이다. 올해 병이 많아 죽어가는 딸기 모들이 많다고 하는데, 건조하게 키워 덜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딸기의 해충은 주로 진딧물과 응애이다. 진딧물은 천적인 진디벌을 넣으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잘 관리를 해준다. 그러나 응애는 딸기를 고사시킬 수 있기에 보이기 시작하면 방제를 해주어야 한다.

딸기는 작기가 긴 작물기에 병충해에 잘 대응해주어야 한다. 친환경이기에 제약이 많지만 그 안에서 다양하게 병충해의 발생이 적게 관리해주어야 한다. 농사는 그래서 경험으로 조금씩 알아가지만 자연은 무수히 변화하기에 안다고 하는 것이 참 별 소용이 없기도 하다.

글 이남연 농부

고대 그리스적 사유의 특징(2)



박석준 원장의 농사에 길을 묻다<20>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동서양의 많은 차이를 가져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역전일 것이다(윤구병 앞의 인용 논문 참조). 이는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근대 서양과학에 남아 있는 전통이기도 하다. 곧 우리가 보는 대상 또는 현상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대상과 분리된 인간의 감각에 의해 파악된 것일 뿐이다.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고 씻고 하는 물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 가변적인 것으로 보고 변하지 않는 본질은 H₂O라고 믿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파악된 H₂O, 자연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H₂O가 현실이 되고 우리가 접하는 물은 현실이 아닌 것이 된다. 더군다나 현실의 대상은 늘 생성하고 소멸하고 있다. 생성은 그 자체로 불규칙성과 무질서, 나아가 악의 원리다. 생성이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동의 이데아에 의해 질서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 질서는 예를 들면 숫자, 형상 등이다(반면에 동아시아의 사유는 질서를, 생성에 내재하고 있는 것, 즉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생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질서는 외부에서 주어

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물은 그 스스로는 운동할 수 없고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만 운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인과적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인과율이 중요시된 이유이다(이에 비해 동아시아에서 질서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경향 곧 세勢가 중요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실재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경쟁하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기계론적 또는 결정론적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론적 설명이다. 기계론적 설명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를 묻는다면 목적론적 설명은 '무엇을 위하여'를 묻는다. 이 두 이론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과성이라는 공통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사고는 예를 들어 밝음과 어두움, 한 마디로 음과 양과 같은 대립자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의 대립자가 반대의 대립자 속으로 변화되지 못하며, 서로가 서로를 파괴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대립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제한다. 동아시아의 사유는 이와 반대로 대립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것이다. 양은 음의 밀집하는 성질

속으로 침투하고 음은 양의 흩어지는 성질 속으로 빠져든다. 원초적 동일성인 하나의 기로부터 음과 양은 끊임없이 생성되어 나와 서로가 서로를 실현시킨다. 이상호작용은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이다. 유물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질의 자기운동이다. 이와 반대로 고대 그리스에서는(특히 아리스토텔레스) 대립자로 구성된 실체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사유에서는 사물의 생성을 이루는 기는 동시에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둘은 변화의 궁극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둘이 함께할 때에만 다른 모든 것을 만들게 된다. 여기에 이 둘을 관계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3의 무언가'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서로로부터 배제된 대립자들이 실제로 설정되게 되면 이러한 정적인 질서는 동적인 질서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일으키는 제3의 무언가, 곧 원동자를 필요로 하며 그 최고의 표현은 신이다(이상은 프랑수아 줄리앙, 『사물의 성향』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신의 가호 아래 각 존재들은 서로 빈 공간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운동의 지속을 위해서는 평등해야 한다(불평등하면 일방적인 운동에 의해 지속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회에 반영되어 정치에서의 민주와 교환

에서의 정의가 생긴다. 물론 고대 그리스의 자유는 다른 민족과 대립되었고(식민지 약탈은 '자유로운 사업'이었다) 다른 실체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독립을 기초로 한 것이었으며(도시의 독립을 위한 구분과 차별, 폭력은 불가피했다) 그것도 노예노동과 여성의 배척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일 뿐이다(양적, 『동서인간론의 충돌』).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와는 다소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각 개인은 서로 분리되어 고립되어 있으며(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모두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평등하며(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다. '법'은 곧 모든 교환의 질서를 강제한 것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과실은 지배층이 독점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오늘날의 지배자는 누구보다도 민주를 지지한다. 만일 민주가 파괴되어 '비민주적인' 또는 전근대적인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재편되어 사람들이 생활과 사고를 공동체 단위로 한다면, 지금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와 자동차와 같은 대부분의 소비재는 공동체의 숫자만큼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그런 지옥과도 같은 사회를 어느 지배층이 바라겠는가.

글 휴살림 동일한의원 원장, 동의과학연구소 소장

휴살림 대용량/축사용
균배양 톱밥

국내산 100%

국내산 천연목재만으로 만든 톱밥에 휴살림균배양체를 첨가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통기성 및 약취제거 능력이 뛰어납니다.

■ 제품의 특징

수분함수율(%)	37~38%
용도	축사 깔개용, 퇴비용,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등
포장단위	톤백, 마대자루, 벌크
품질	잔류농약검사를 마친 1등급
가격	전화문의

■ 사용방법

- 양계장 5~10cm, 우사 10~30cm, 돈사 6~10cm 정도 덮어줍니다.
- 매 2~3일 마다 발효톱밥을 배설물 위에 덮어줍니다.
- 가축이 발효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매 7일 정도마다 발효톱밥을 소비된 만큼 보충해줍니다.

■ 포장단위



마대



톤백



벌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
www.heuksalim.co.kr

구매문의
043-216-2958

신제품

각종 행사 참여 활동



‘청원생명축제’ 토마토 가공제품 등 전시

흠살림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미래지농촌테마공원(청주)에서 펼쳐진 청원생명축제에 유기농산물과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토마토 캐닝 가공제품을 선보였다. 또 10월 18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청주)에서 개최된 충북여성재단이 주최하는 2019충북 성평등 축제에도 참여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소개했다.



‘괴산군 농업경영인 대회’ 장학금 전달

흠살림은 10월 1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에서 제31회 괴산군 농업경영인 및 가족한마음대회에서 ‘흠살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고 있는 괴산군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하고 회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흠살림은 장학금을 통해 미래농업의 발전과 지속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유기농식품 소비확대 협약식

흠살림푸드는 지난 9월 24일 흠살림청주센터에서 ‘열 명의 농부’, ‘맘스캠프’와 충북 유기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다리와 사람들’과 상호협력 선언식

흠살림은 10월 18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다리와 사람들’과 유기농식품 발전과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선언식을 가졌다.



‘흠살림 가족의 날’ 토종 벼베기 등 진행

흠살림은 지난 10월 19일 흠살림농장에서 ‘흠살림 가족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토종벼를 모종으로 한 경관용 붉은찰과 검은찰 등을 낫으로 베어 수확하는 벼베기와 방울토마토와 고추로 장아찌를 만드는 체험을 가졌다. 농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직접 키운 수확물을 통해 유기농업이 주는 건강함과 배려 정신을 배우고, 함께 추수하면서 협

동정신과 일치감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기에 흠살림 Non GMO 사료로 흑염소를 키우고 있는 김규운 농부가 흑염소를 잡아 탕과 구이를 제공해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가을 햇빛을 받으며 농사일을 거두고, 땀을 식히며 막걸리와 함께 흑염소구이를 먹는 시간은 흠살림 가족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했다.

전국 최고품질!
김장 기획전

“힘들게 절이지말고 괴산절임배추로
편하게 김장하세요!”

괴산 절임배추
(진공포장 / 일반포장)

김장 양념

11월 14일부터 순차발송

• 구매안내

N 마켓투유

1. 네이버에 마켓투유 검색
2. 마켓투유에서 “절임배추” 검색 구매!

• 고객센터

1544-1092



한국유기농인증원

한국유기농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취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유기농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간소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지점 주소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0, 거목빌딩 408-2호
전화 043-715-9526



<흙의 인문학> 여섯 번째 강좌 안내

- 11월 14일 오후 7시 ● 충북 NGO센터
- 주제 : 땅의 눈물, 흙의 침묵 ● 강연자 : 임옥상 화가

“GMO는 생물다양성 파괴”

흙의 인문학 강연 ... 권영근 박사, GMO문제 설명

흙살림은 지난 10월 10일 충북 NGO센터(청주) 대회의실에서 인문학강좌 시리즈 ‘흙의 인문학’ 다섯 번째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권영근 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이 <흙을 땅으로 땅을 흙으로>라는 주제로 90여 분 간 진행됐다. 권영근 전 소장은 먼저 GMO가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환경이 보호되는 농촌을 보존한다는 미사여구의 명분을

을 붙여서 일반인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더 많은 이익증대를 위한 개발이 주 목적임을 밝혔다. 또한 3개 기관(USA 전국 과학 아카데미, USA 전국 기술 아카데미, USA 의 학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GM 농작물은 생산량 증대가 불가능 하고, 제초제 내성 GM 작물은 슈퍼 잡초의 증가를 초래하여 생태계·환경을 교란·파괴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하



였다. 다음으로 라운드 업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 물질 여부를 둘러싼 싸움을 소개했다. 갑론을박의 논쟁 속에서 2015년 3월,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의 전문조직인 ‘국제 암 연구기구(IARC)’가 “글리포세이트는, 인간에 대하여 아마도 발암성이 있다”고 발표한 연구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농가고객 방문의 날



흙살림은 지난 10월 17일 ‘농가고객 방문의 날’을 맞아 경북 고령을 비롯해 강원 평창, 진천 문백 등 전국의 산지 농가를 찾는 행사를 가졌다. 한창 수확기를 맞은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점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또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모색했다. 농가 고객 방문의 날은 흙살림의 농가재 전문가, 유통 담당자 등이 함께 농가를 찾아 재배에서 유통까지 포괄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는 소통의 시간이다.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흙살림은 언제나 현장 속으로 달려갈 것이다.



흙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개인 및 법인 등 단체 후원도 가능

친환경농업 교육 및 컨설팅, 유기농 정보지 제작, 친환경농업 연구 등 흙살림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후원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흙살림연구소의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밀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지 제작, 토종씨앗 보존 및 전파 등 우리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사)흙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무엇보다, 마음에 고요가...



마라가는 연꽃과 시드는 연잎이 맞잡입니다.
이렇게 나들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을이 가는 가을, 무엇 보아 마음에 고요있으시기를 ...
철수 

고품질 발효아미노산그래놀

Non-GMO 대두박이 함유되어 질소 및 양질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기능성 특허미생물이 처리되어 토양항균력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흙살림 아미노볼
아미노산 그레울(15kg)
특허미생물처리(항균)
7.5-2.5-1
공시-3-3-191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토양관리용 발효유기질펠릿

기능성 특허미생물이 처리된 발효유기질 펠릿. 피마자박이 배제되어 리신 독성에서 안전합니다.



흙나라 발효펠릿
균배양체 펠릿형(15kg)
주정박, 대추박, 부식산 사용
특허미생물처리(항균)
공시-3-3-192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구입 및 문의사항(주)흙살림 043-216-8179

10월 흙살림 후원회원 가입

이수현(충북 청주)

흙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사영, 강승희, 고진환,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오전, 김광부, 김규운, 김기현, 김남운, 김대수, 김대화, 김동연, 김동진, 김만수, 김명실, 김봉기, 김생수, 김수식, 김수철, 김숙원,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승, 김준권, 김종상, 김홍대, 김행숙, 나기창, 나종연, 도재천, 라병현, 라양채, 라영환, 민성기, 박건혁, 박기환, 박동운, 박상일, 박승인, 박영구, 박영옥, 박정국, 박정규, 박종삼, 박종수, 박종원, 박중화, 박준순,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백미숙, 백은남, 서성내, 서순악, 서위중, 서정수, 석종욱,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성윤제, 송기봉, 송동홍, 송미선, 송영환, 송인훈, 송지은, 신동우, 신문수, 신미영, 신연관, 신종하, 신치영, 신현식, 심민보, 심정섭, 안정택, 염선업, 오과칠, 오복수, 오영세, 원희성, 우범기, 우중서, 원순자, 육종식, 윤국현, 윤성희, 이기철, 이명순, 이명환, 이민채, 이봉휘, 이성원, 이수일, 이연호, 이영민, 이영희,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준규, 이채원, 이철민, 이태근, 이필규, 임동영, 임원택, 임진수, 임현구,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세규, 장소애, 전중화, 전홍탁, 정구홍, 정규원, 정규태, 정기환, 정명순, 정방현, 정석조, 정쌍은, 정 은, 정인숙, 정정신, 정창조, 정청천, 조기진, 조 술, 조정인, 조종기, 조현국, 주윤식, 주현경, 진필경,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병국, 최재학, 최춘식, 한정화, 허상오, 홍석민, 홍용기, 홍종운, 황기하, 황대호, 황영희, 황인걸 (주)ACT정다운여행사, 가림다마을영농조합, (주)세인, (주)제일그린산업, 한국농식품인증원, (주)흙살림, (농)흙살림푸드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70-4035-5979

10월 흙살림 주요 활동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1일	괴산	행사		괴산군 농업경영인 대회
8일	괴산	행사	10	청년귀농 장기교육과정 수료식
10일	청주	강좌	40	흙의 인문학5 - 권영근 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17일	고령 등	행사		흙살림 농가고객 방문의 날
18일	서울			'다리와 사람들' 상호협력 선언식
19일	괴산	행사	30	흙살림 가족의 날
26일	서울	행사		한살림 가을걷이 행사
25~27일	단양	행사		단양군친환경농축산물전시직판행사
28일	아산	회의		유기농기술위원회 회의
29일	청주	행사		흙살림 황수화제 필리핀 수출